

##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 적절성 의문

제주도, 사라봉공원 기부숲 조성·기념물 설치  
“첫 사업 감안 시급성 등 고려 신중히 결정해야”

제주도가 제주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1호 사업처로 ‘기부숲’ 조성을 택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와 함께 도심 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도심 공간대를 얻기 위해선 기금 사용처 결정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비 5억 원 규모의 ‘제1호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기부숲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첫 사용처다. 기부숲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사라봉공원 구역 내 모충

사 남측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는 오는 6월쯤 숲 조성 공사에 착수해 10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고향사랑 기부숲을 항일 의병 및 항일투쟁가, 의녀 김만덕을 기리는 모충사와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나눔과 베품’의 기부숲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부숲에 기부 기념 조형물을 설치해 기부자를 예우하고, 시도별 상징 수목을 식재해 도심 내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금된 기금을 전액 투입하는 첫 사업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도민과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기금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1호 사업으로 기부숲 조성이 그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1호 사업 선정을 위해 의견 수렴과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거론된 사용처 중에는 기부숲 조성 뿐 아니라 해변 플로깅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주 지난 2월 말까지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2억9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의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지만, 연말까지 기부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합산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숲 조성 사업은 오는 5월 예정된 올해 첫 추정 편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부자를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소공원이 조성되면 주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복리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기부자 유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금이 모이게 되면 주민복지 사업이나 청소년, 문화 육성 등까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환경보전 헌신한 주인공 찾아요”

‘제30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4대 분야·12개 부문  
내달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접수... 6월 16일 시상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한라일보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제30회 한라환경대상’ 주인공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 UCC 공모전 등 총 4대 분야·12개 부문이다. 대상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에 헌신하는 개인, 단체, 기업, 학교, 교사, 학생 등이다. 한라환경대상 수상자 1팀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 참여는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 세부 공적개요 등 증빙자료를 한라일보사 경영기획실(750-2540)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hkim@hallailbo.c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수상자의 경우 수상

한 날로부터 기존 ‘5년 경과’를 ‘2년 경과’로 제척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보전운동을 생활화하는 근로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6월 16일 한라일보사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한라환경대상은 현재까지 단체 65개 팀과 개인 79명 등 총 14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재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환경보전 분야에 공헌한 많은 분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 위한 첫 단추 켜다 도, 장주기 ESS 구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력계통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장시간으로 오래 충전하고 방전하는 방식의 에너지저장장치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와 전력거래소는 30일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제주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에 160



형형색색 만개한 튜립 시나브로 봄이 완연하다. 스키는 바람에도 온기가 실린다. 봄별 따스한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출리의 한 관광농원에 형형색색의 튜립이 활짝 피어 봄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다.

MW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계획을 명시했다.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중앙계

약시장이 도입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

로 예비사업자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정실 벚꽃터널의 운명은?... 3면 / “사수도 집취, 인위적 유입”... 5면

### 대표변호사 양경승 개업인사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2006년 법원에 복직하여 사법연수원 교수와 창원, 수원, 서울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형소부(마약, 의료, 약사, 환경 전담부) 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정행인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어 다시 제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29회, 환경부 사무관)를 거쳐 1992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재판업무와 사법연수생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는 물론 민사, 상사, 가사, 행정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임대차법> 등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제주와 서울에서 예전 변호사로 일할 때와 같이 늘 성실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로써 도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정행인(正行人)제주분사무소

제주시 서광로(오라3동) 52-6/해태동산→150m(리버트기구 옆)→오라오거리  
양경승 변호사 064-755-5879 / 010-6616-2638 / sky603178@gmail.com  
김영안 사무장 064-755-5879 / 010-3693-5879 / jwon0529@hanmail.net

## 2023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기간** 2023. 3. 30 목 ▶ 4. 2 일 (4일간)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이호운동장

**LIVE STREAMING** 제주 MBC TV LIVE 중계 [고등부] 종합경기장

**준결승** 4월 1일(토) 오후 12시 40분 ~ 4월 1일(토) 오후 2시 40분 ~

**결승** 4월 2일(일) 오후 1시 10분 ~

\* 방송 편성 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부** 예선·준결승·결승 제주일보 홈페이지 및 YouTube 생중계

\* 본 대회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종합경기장내 관람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최** 제주일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